

5월31일(월)/사도행전24:10~23

제목: 흥분하면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더돌로의 발언에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조목 조목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하였다. 바울은 우선 더돌로의 고발을 부인한 후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기가 사람들을 소동케 한 것을 본 목격자와 증거가 없음을 밝혔다(12~13절). 그리고 그는 자기의 신앙에 대하여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는 오래전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정통성이 있는 종교이며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하였다(14~16절).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지를 밝혔다. 그는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은 구제금 전달이라고 분명히 밝혔다(17절). 바울은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반박함으로 주도권을 잡아나갔다. 그는 화를 폭발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기 입장을 발표함으로 사태의 추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해나갔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다. 흥분은 논리적인 사고에 지장을 준다. 사람은 분노를 폭발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정당하게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린다. 흥분은 사람의 지능을 떨어뜨린다. 흥분은 자신의 논지를 까먹게 만든다. 사람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배양해야 한다.

6월1일(화)/사도행전24:24~27

제목: 미루면 다시 돌아옵니다.

벨렉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을 초청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가르쳤다(24~25절). 바울은 이때 그들의 환심을 사서 석방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잘못된 과거와 거기에 따른 심판을 증거하였다(25절). 그러자 벨렉스는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과거에 총독 재임 시절에 극악 무도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강론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결단을 미루었다. “지금 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25절) 그리고 그는 틈 틈이 바울을 부른 것은 돈을 바래서였다(26절). 기회는 사라져가고 있다. 그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곧 바로 무릎을 꿇고 결단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완고하여 졌다. 성격은 여전히 잔인하고 생활은 여전히 방탕했을 것이다. 우유부단의 결과는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결단을 미루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쉽다. 하나님의 의와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곧 바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미루면 다시 과거로 회기한다.

6월2일(수)/사도행전25:1~5

제목: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벨릭스가 물러나고 베스도가 후임으로 온 3일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1절). 대개 새로 부임한 지방행정관들은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는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이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하기를 구하였고 그 와중에 테러를 가하여 그를 죽일 생각이었다(2~3절). 그러는 베스도는 바울은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있어야 하며 또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의 관할 지역인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를 고소할 일이 있으면 직접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하라고 하였다(4~5절) 이로써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음흉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베스도는 본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다.(25:9) 그러나 베스도는 왜 처음에 행하려 했던 것과 다르게 유대인들의 부탁을 거절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총독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제목은 항상 들어가 있어야 한다.

6월3일(목)/사도행전25:6~12

제목: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작업하십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아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7절). 이어서 그는 자신이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을 선동한 적이 없음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8절).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써 로마의 황제가이사에게 상소할 뜻을 비추었다(10절). 이에 베스도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12절)고 했다. 드디어 바울은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가 낙심해 있던 어느 밤에 주님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23:11)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의 가이사의 대리자 총독의 입에서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말이 떨어졌다. 바울은 그 소원을 이룰 목전에 와있다. 그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일과 고소당한 일과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지냈던 지난 몇 년 간의 일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와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작업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의 일을 놓고 너무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랫동안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의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한다.

6월4일(금)/사도행전25:13~22

제목: 교리 따로, 삶 따로

베스도 총독이 유대지방에 부임한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였다(13~14절). 베스도의 말을 토대로 보면 그는 바울의 죄에 대해 비교적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18~19절). 그래서 바울의 재판을 결론짓기보다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 놓았다(21절).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예수라 하는 이의 부활을 믿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것이었다(19절). 실제로 유대인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을 교리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삶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리를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교리와 실재를 분리했다. 그들은 이론과 실재를 따로 생각했다. 부활 이론을 가장 강력히 입증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인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볼 생각도 없었다. 교리는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교리는 암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서의 여러 가지 신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낸 교리들은 우리 생활 현장 속에서 실제이며 삶이며 생명과 같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